

# 김돌산 심방 본풀이 채록

## 초공본풀이

옛날 옛적 천하 임전국 대감님이 샅데다. 지하 짐전국 부인님이 샅데다.

입장 갈림<sup>1)</sup> 허연. 천하(天下)에 거부제(巨富者)로 살아가는디, 이십 스물 넘고 삼십 서른이 뒤편도 남녀간에 조식이<sup>2)</sup> 엇어지난,

천하 임전국 대감님은 흐를날은<sup>3)</sup> 강나룩<sup>4)</sup> 밧도<sup>5)</sup> 돌아보저. 초나룩<sup>6)</sup> 밧도 돌아보저. 두어 바둑, 장기도 두어 보저. 두어 바둑 장기 두단, 돈을 몰팍<sup>7)</sup> 몰귀 다 따난,  
“대감님아, 집이 가민 어느 애기 잇영 주쿠과? 우리 갈라쥬 동<sup>8)</sup> 갑서.”

그 돈 혼 푼씩 갈라주어뵈 올는 게, 강나룩 밧 초나룩 밧 돌아보난, 말 모른 저 가막세<sup>9)</sup> 아방 본 셴<sup>10)</sup> 아방강골, 어멍 본 셴 어멍강골 허여가난, 이젠 내려오단 보난, 비주리 초막살이<sup>11)</sup> 영천강 웃임소리가 남시난, 얻어먹는 계와시(乞人)덜 무얼 보고 웃는고. 담고냥으로<sup>12)</sup> 눈을 쏘안 바려보난,<sup>13)</sup> 애기 흐나<sup>14)</sup> 놓안, 어멍 앞더레 걸어가민 아방이 웃어가고, 아방 앞더레 걸어가민 어병이 웃어가난, 얻어먹는 계와시덜토 저영 웃는디 우린 흐루종일 앓아도 웃을 일이 엇구넨 허연.

집이 오란 방을 잡안 누난, 짐진국 부인님은 대감님아, 대감님아. 나도 두 번은 아니 웃어도 혼 번은 웃을 일을 내여놓쿠덴 헤연. 은단땡(銀唐瓶)에 서단마게<sup>15)</sup> 막안 춤썰<sup>16)</sup> 혼제 묵언 이레 동글 저레 동글 허난, 웃임이<sup>17)</sup> 아니 나난, 천하 임전국 대감님도 문을 잡안 누웠구나. 지하 짐전국 부인님도 문을 잡안 누웠구나.

이젠 어떻허린. 동계남 은중절(東觀音殷在寺) 서계남 금법당(西觀音金法堂) 낭계 상상(上山) 메양 올라<sup>18)</sup> 한동절 부처 지컨<sup>19)</sup> 대서님이 인간땅에 느려 강<sup>20)</sup> 시권제삼문(勸濟三文)을 받아당, 현 당 현 절 수리 허민, 멩(命) 없는 자 멩을 주고, 복(福) 없는

- 1) 입장갈림: 혼인.
- 2) 조식이: 자식이.
- 3) 흐를날은: 하룻날은.
- 4) 강나룩: 발벼.
- 5) 밧도: 밧도.
- 6) 초나룩: 찰벼.
- 7) 몰팍: 장기에서 ‘가’가 갈 수 있는 자리.
- 8) 갈라쥬동: 나눠주고.
- 9) 가막세: 까마귀.
- 10) 아방 본 셴: 아버지 본 새는.
- 11) 비주리초막살이: 아주 작은 초막살이.
- 12) 담고냥으로: 담고망으로.
- 13) 바려보난: 바라보니.
- 14) 흐나: 하나.
- 15) 서단마게: 마개. ‘서단-’은 ‘은단-’에 맞춘 조운(調韻)
- 16) 춤썰: 명주실.
- 17) 웃임이: 웃음이.
- 18) 메양 올라: 늘 올라서.
- 19) 지컨: 지킨.
- 20) 느려 강: 내려 가서.

자 복을 주고 생불 없는 자 생불을 처급(處給)허렌 인간 땅더레 도노립데다.

인간 땅더레 도노리난, 천하 임전국 대감님광 지하 짐전국 부인님네 집더레  
“짚알로 도노리멍<sup>21)</sup> 소송 절이 뵈옵네다.”

짐진국이 부인님이 복지께를<sup>22)</sup> 내어놓아 시권제삼문을 내어 높이 들러 스프르스프  
룩 비와간다.

“훈 방울이<sup>23)</sup> 떨어지민 멩도 떨어지고 복도 떨어집네다.”

가젠 허난

“대서님아, 대서님아. 원천강(袁天綱)이나<sup>24)</sup> 가집데가. 사주역(四柱周易)이나<sup>25)</sup> 가집  
데가.”

“원천강 가질 수가 잇우과? 사주역을 가질 수가 잇우과? 난 날<sup>26)</sup> 난 시<sup>27)</sup> 생년월  
일이나 곶아뵈서.<sup>28)</sup> 단수육갑(單數六甲) 오용팔과(五行八卦)나 짚어 보게마썸.”

단수육갑 오용팔과를 짚어 보난, 우리 법당에 왕 수륙(水陸) 들이민 아들이나 딸이  
나 남직 허덴 허난,

“계민 어떻 출령<sup>29)</sup> 갑네까?”

강납엔 강나룩 모납엔 모나룩, 가삭베(袈裟地)도<sup>30)</sup> 구만 장 송낙베도<sup>31)</sup> 구만 장 염  
줄(念珠) 목닥<sup>32)</sup> 베 잔뜩 출령 오란, 밤인 원불((願佛) 낮인 수륙 원불당(願佛堂) 전수  
륙, 만불당 만수륙 젓복제맛이 올립센 허난.

천하 임전국 대감님광 지하 짐전국 부인님이 잘 출런 절간 법당 들어가난, 니눈이  
반동개<sup>33)</sup> 드리쿵쿵 내쿠쿵 추감꾸나.

“저레 바라보라. 소서야. 천하 임전국 대감님광 지하 짐전국 부인님 수륙 드리레 올  
레 셋거든 법당 안터레 청허라.”

허연. 법당 안터레 청허연. 밤인 원불 낮인 수륙 원불당 원수륙 천불당 천수륙 젓복  
제맛이긋을 올리난, 석덜 열흘 백일 기도를 허난, 백근을 준준이 지울리난, 아이고,  
아흔아홉 근이로구나.

“천하 임전국 대감님아. 지하 짐전국 부인님아. 아들 즈순은 못 처급을 허고, 딸 즈  
순백인 못 처급허쿠다.”

허난, 천하 임전국 대감님광 지하 짐전국 부인이 허는 말이,

“배고픈 사름이 식은 밥 더운 밥 골릴 수가<sup>34)</sup> 잇입네까. 아들은 나민 어찌고 딸은

21) 짚알로 도노리멍: 아래로 내리면서.

22) 복지께를: 조금 오목한 꼭지 없는 바리뚜껍.

23) 훈 방울이: 한 방울이.

24) 원천강(袁天綱): 당(唐)의 점장이 이름.

25) 사주역(四柱周易): 사주(四柱) 보는 주역(周易).

26) 난 날: 태어난 날(日).

27) 난 시: 태어난 시(時).

28) 곶아뵈서: 말해보세요.

29) 출령: 차려서.

30) 가삭베: 승려의 옷을 만드는 천감인 배.

31) 송낙베도: 고깔을 만드는 천감인 배.

32) 목닥: 목탁.

33) 니눈이 반동개: 네눈이 반동개. 눈이 네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개.

나민 어떻습네까. 톨도 좋고, 아들도 좋수다. 생불(生佛)만 줌센.”

허난,

“게건들랑 지하 임전국 대감님광 지하 짐전국 부인님 내려 강 꿈산에 강 꿈을 봅서. 해몽산(解夢山)에 강 해몽을 봅서. 합궁 날(合宮日) 합궁 시(合宮時) 무어<sup>35)</sup> 봅서.”

절간 법당 소곡소곡 내려온다. 꿈산에 강 꿈을 보난, 청비둘기 한쌍이 두루막<sup>36)</sup> 콤더레<sup>37)</sup> 들어와 벤다. 치메콤더레 들어와 벤다. 부베간에 합궁날 합궁시에 무언, 천상 베필을 무으난,

아방 몸에 석 덜 열흘 어멍 몸에 석 덜 열흘 가마 춘삭(準朔) 찬 낱는 건 보난, 곱닥한 여중 애기씨가 솟아났구나. 앞니명엔<sup>38)</sup> 해님 곱은<sup>39)</sup> 애기씨 뒷니명엔 들(月)님 곱은 애기씨, 물아레 옥돌곱은 애기씨 제비새 젓날개<sup>40)</sup> 곱은 애기씨가 솟아나난, 아이고, 천하 임전국 대감님이 허는 말이,

“늦은덱이 정하님아, 저 산천이나 바레보라. 어느 만쫂이나 뉘엇이니?”

저 산철에 바레보난, 물은 들언, 낙하가 뉘연 입에 불긋불긋, 불근 물이 들언 다 털어지엄수덴 허난,

이 애기 이름이랑 쯔지명왕 애기씨, 이름 생명 녹하단풍쯔지명왕 애기씨로 이름 생명 지왔구나.

이름 생명, 쯔지명왕 애기씨로 이름 생명 지으난, 구시월이 난, 단풍이 물들언, 불긋불긋<sup>41)</sup> 물드난, 애기씨, 녹하단풍 쯔지명왕 애기로 지완, 혼설 두설 열다섯 십오세가 뉘여가난,

천하 임전국 대감님은 천하 공서(天下公使) 살레<sup>42)</sup> 읍서. 지하 짐전국 부인님이랑 지하 공서(地下公使) 살레 읍서. 영 허난, 천하 임전국 대감님광 지하 짐전국 부인님이 허는 말이,

늦인덱이 정하님아, 우리 천하공서 지하공서 살아 올 동안, 애기씨 궁기로<sup>43)</sup> 밥을 주고 궁기로 물을 주멍 키암시렌 허난,

“걸랑 기영 험서.”

아방 중근 통췌<sup>44)</sup> 어멍이 감봉(監封) 두고, 어멍 중근 통췌 아방이 막음 두언, 수리 감봉<sup>45)</sup> 두언. 상거슴 통췌로 절로생강<sup>46)</sup> 증갓구나.<sup>47)</sup> 천하 공서 지하 공서 아버지 살

34) 골릴 수가: 따질 수가.

35) 무어: 땀어.

36) 두루막: 두루마기.

37) 콤더레: 품으로.

38) 앞니명엔: 앞 이마에는.

39) 곱은: 같은.

40) 젓날개: 젓날개.

41) 불긋불긋: 불긋불긋.

42) 살레: 살러.

43) 궁기로: 구멍으로.

44) 중근 통췌: 잠근 통쇠는.

45) 수리감봉: 잠가서 봉한 표지를 하고의 뜻인 듯.

46) 절로 생강: 절로 승강.

레가고, 어머니도 살레가고,

살레가난, 절간 법당 황금산(黃金山)에서 인간땅더레 굽어보난 우리 절간 법당에 완 수록 드령 난 애기씨, 녹하단풍 즈지명왕 애기씨로구나. 궁 안내 가두왔구나. 궁 안내 가둔 애기 시권제삼문 반양 오민 절간 법당 정<sup>48)</sup> 뒤영 주켄 허난, 황금산 주접선성이 나가 갖당 오켄 허난, 주접선성 인간 땅더레 도노립데다.

저 올레로

“소승은 절이 웹네다.”

월양소리가 낫구나. 아바님이 오시는다. 어머니가 오시는다.

“늦인덱이 정하님아. 저레 바려보라.”

“하늘이 속복헌<sup>49)</sup> 종이 대서가 오랏우다.”

“종이 대서가 왓이민 시권제삼문을 내여주라.”

늦인덱이 정하님 시권제삼문을 내여주난,

“아이고, 늦인덱이 정하님, 말(斗)로 섬으로 뒤로<sup>50)</sup> 주는 거 보단, 녹하단풍 즈지명왕 애기씨가 명이 부족하고 복이 부족허난, 그 손으로 시권제 문을 내어 주어사쿠덴.” 허난,

시권제삼문을 내여 드리젠 헤여도, 아방이 증근 통쇄 어멍이 감봉 두고, 어멍이 증근 통쇄 아방이 수리감봉 두어 지난, 시권제 내여주젠 헤도 문을 못 올안<sup>51)</sup> 못 내어 주쿠덴 헤염수덴.

허난, 게거들랑 나가 그 문을 올라 주크메<sup>52)</sup> 시권제삼문을 내여주크넨 들어보렌.

허난, 경 허켄 햄수덴 허난, 대서님이, 하늘옥황 도성문 올려 오던 천왕낙훼를<sup>53)</sup> 둘러받양 혼 번을 둘러치민 천하가 요동, 또 혼 번을 둘러치민 지하가 요동. 일흔<sup>54)</sup> 돌상거슴 통쇄가 절로 쟁강 올라지엇구나.

절로 쟁강 올라지난, 녹하단풍 즈지명왕 애기씨 고평에<sup>54)</sup> 들어간, 하늘이 불 건가 흑(黑)너울을 둘러쓰고, 땅이 불 건가 백(白)너울을 둘러썸, 아버지 먹단 향엔 간 보난 검은 줌이<sup>55)</sup> 일엇구나. 어머니 먹단 향엔 간 보난 흰 줌이 일엇구나. 녹하단풍 즈지명왕 애기씨 먹던 향에 간 보난 곱닥허엇구나. 시권제삼문을 앓아내언 내여단, 혼방울이 떨어지민 명도 복도 떨어집네다. 높이 들령 알려레<sup>56)</sup> 시르륵 시르륵 비웁센 허난,

부처 지켄<sup>57)</sup> 대서, 황금산 주접선성이 혼짜<sup>58)</sup> 손은 하늘옥황 단수육갑 짚으레 갖추다. 혼짜 권 입에 물고, 혼짜 권 손에 들령 알더레 내부난, 야, 알더레 자르륵 허게

47) 증갓구나: 잠갓구나.

48) 정: 청.

49) 속독헌: 가득한.

50) 뒤로: 되로.

51) 올안: 열어서.

52) 주크메: 줄 테니.

53) 천왕낙훼를: 요령을 일컫는 말.

54) 고평에: 고방(庫房)에.

55) 줌이: 줌이.

56) 알려레: 아래로.

57) 부처 지켄: 부처 지킨.

58) 혼짜: 한쪽.

털어지었구나. 상거메를<sup>59)</sup> 삼세번 찢어.

“이 중 저 중 귀썸헌 중이로구나. 양반이 집이 덩기지<sup>60)</sup> 못 헐 중이로구나.”

이젠 나신디 욱험주만은 석덜 열흘이 넘어가민 날 생각이 날거엔 허난, 송낙귀도<sup>61)</sup> 혼 귀야지<sup>62)</sup> 모지려온다.<sup>63)</sup> 장삼(長衫)귀도 혼 귀야지 모지려온다. 철쭉대도 혼 귀야지 모지렷구나.

중근 통쇄나 연거, 증가똥<sup>64)</sup> 갑센 허난, 하늘옥황 도성 문 올려 오던 천왕낙뢰로 혼 번을 둘러치민 천하가 요동, 두 번을 둘러치민 지하가 요동, 삼세 번 둘러치난 일 혼요덥 상거슴 통쇄가<sup>65)</sup> 절로 생강 증가지었구나.

허루 이틀 지언, 혼 덜 두 덜이 지나가난, 밥엔 밥내<sup>66)</sup> 난다. 물엔 풀내 난다. 옷엔 펄내<sup>67)</sup> 난다. 국엔 장칼내가<sup>68)</sup> 난다. 시금시금 연더레도<sup>69)</sup> 먹고저라. 전가레도 먹고저라. 오미저도<sup>70)</sup> 먹고저라. 영허난, 늦인덱이 정하님 송동바구리 들러 찬, 저산천에 올라갓구나. 아이고, 높은 낭에<sup>71)</sup> 열음이라<sup>72)</sup> 딸 수가 엇구나.

“멩천(明天)골은 하늘님아, 저 높은 낭에 열매 모진 광풍이나 불어줍서. 우리 상전님, 애기씨 상전님. 먹영 살아나게 황금산 신령으로.”

모진 광풍을 불언 전가레도 탕구나. 오미저도 탕구나. 시금시금 연더레도 탕구나. 송동바구리에 잔뜩 담안 오난, 혼 방울 먹으난 낭에 낭네<sup>73)</sup> 난다. 풀에 풀내<sup>74)</sup> 난다. 먹을 수가 엇었구나. 애기썸 배도 불어오라가고, 손발도 붓어가고 영 허난, 죽을스경(死境)이 다돌앗구나. 천하 임전국 대감님아, 천하 공서 그만 살앙 혼저<sup>75)</sup> 읍서. 지하 짐전국 부인님아, 지하 공서 그만 살앙 혼저 읍서. 애기시 죽을스경이 다 돌앗수다. 천하 공서 지하 공서 다 살앙 오난,

“아방신디 선신(現身) 가젠 허민 어떻 가느니?”

늦인덱이 정하님이 허는 말이, 아버지신딘 소곡소곡 소곤정으로<sup>76)</sup> 풀 죽은 치메<sup>77)</sup> 입곡 갑센 헤연. 소곡소곡 소곤정으로 가난,

“아이고, 서룬 애기야. 어떻허난 눈은 곰방눈이<sup>78)</sup> 뉘엇이니?”

59) 상거메를: 상가마를.

60) 덩기지: 다니지.

61) 송낙귀도: 고깔 귀도.

62) 귀야지: 모서리.

63) 모지려온다: 끊어온다.

64) 증가똥: 잠가 두고.

65) 일혼요덥 상거슴통쇄가: 자물쇠청이 마흔 여덟이나 걸리는 자물쇠.

66) 밥내: 밥 냄새.

67) 펄내: 빨 냄새.

68) 장칼내가: 장 냄새가.

69) 시금시금 연더레도: 시름시름 연다래도.

70) 오미저: 오미자.

71) 낭에: 나무에.

72) 열음이라: 열매라.

73) 낭내: 나무 냄새.

74) 풀내: 풀 냄새.

75) 혼저: 어서 빨리.

76) 소곤정으로: 늘상 부친에 대해 지닌 정으로.

77) 치메: 치마.

“아버지, 어머니 하도 아니웁젠 담고냥<sup>79)</sup> 문고냥으로 눈을 쏘아부난 곰방눈이 뒤엿우다.”

“어떻헤연 입은 작박입이<sup>80)</sup> 뒤엿이니?”

“하도 울어부난 작박입이 뒤엿우다.”

“벤 어떻허난 두룽둥 베가<sup>81)</sup> 뒤엿이니?”

“아이고, 늦인텍이 정하님, 흡삼시(습三時)<sup>82)</sup> 마련허렌 허난, 뒤삼시 마련허여부난 두룽 베가 뒤엿우다.”

“어떻허난 손은 덩드렁 손이 뒤엿이니?”

“어떻허난 발은 곰베발이<sup>83)</sup> 뒤엿이니?”

아이고, 이젠, 아바님신디 선신 간,

“어머님신딘 어떻 선신 가느니?”

“어머님은 승허물이<sup>84)</sup> 엇이난 풀산 치메 입곡 자직자직<sup>85)</sup> 자진정으로 선신문안(現身問安) 갑서.”

선신문안 가난,

“아이고, 이거 기냥<sup>86)</sup> 일이 아니로구나.”

젓가심을<sup>87)</sup> 걸언 보난, 젓줄이 샷구나.

“궁 안내도 보름이 드느냐?”

은대양에 세숫물 떠 놓안 은수제 걸천 굴메<sup>88)</sup> 바려보난, 종이 즈식이 서이<sup>89)</sup> 들어 샷구나. 아이고, 이거 어떻허민 조코. 이제랑 앞बाट디랑<sup>90)</sup> 작수 걸라. 뒷बाट디랑 작두 걸라. 조강눔을<sup>91)</sup> 불르라. 죽일팔노 헤가난,

“아이고, 대감님아, 대감님아. 앞서서 즈식 죽는 꼴 어떻 볼넬까?”

“게민 어떻허민 좋느니?”

이간강중 나고가렌 험서. 늦인텍이 정하님 죽이젠 허민, 애기씨 나 쥬우다. 애기씨 죽이젠 허민 나 쥬우다.

“흔 목숨 다섯 목숨 죽일 필요가 잇우과. 나고가렌 헤영 내보내여 붙서.”

게민 걸랑 기영 허렌 헤영.

어명은, 나고가젠 허난, 열두폭 대홍대단(大紅大緞) 홉단(單) 치메 내여 준다. 아바

78) 곰방눈이: ‘곰박’에 난 구멍과 같이 일그러진 모양.

79) 담고냥: 담구멍.

80) 작박입이: 주걱처럼 생긴 입모양이 큰 것을 표현함.

81) 두룽둥 베가: 두루뭉술한 배가.

82) 흡삼시(습三時): 세끼 한 흡 밥을 먹음.

83) 곰베발이: 발이 곰방매처럼 생긴 뭉툭한 발을 일컫는 말.

84) 승허물이: 흥허물이.

85) 자직자직: 허리를 뒤로 젖히고 걸어가는 모양.

86) 기냥: 그냥.

87) 젓가심을: 젓가슴을.

88) 굴메: 그림자.

89) 서이: 세 명이.

90) 앞बाट디랑: 앞발에.

91) 조강눔을: 형을 집행하는 자.

지, 계도<sup>92)</sup> 애기상에 모음이라.<sup>93)</sup> 금봉첼<sup>94)</sup> 내여주멍 질이<sup>95)</sup> 아니 날 때민 이거 둘러  
치민 길이 날거난 가곡,

이거 모두 강, 서천강(西天江) 연드리<sup>96)</sup> 내여주엇구나.

서천강 연드리 내여주멍, 아방 눈에 시찌나고<sup>97)</sup> 어멍 눈엔 골리난 검은암쇄에<sup>98)</sup> 혼  
설 적에 입단 입성(服), 두 설 적에 입단 입성, 열다섯 십오 세 안내 입단 입성 즈근  
즈근<sup>99)</sup> 좃영<sup>100)</sup> 늦인덱이 정하님이영 이거 저 베깃디<sup>101)</sup> 나간 허난, 아야산이 근당  
(近當) 허엿구나.

“늦인덱이 정하님아, 어떻허난 아레서 우터레<sup>102)</sup> 불이 헛헛 붙엄시니?”

“부모 가심에 불 지더부난, 아야산, 부모 놉똥<sup>103)</sup> 즈식 먼저 가민 가심에 불 붙으는  
법입네다.”

가단보난 물이 출렁출렁 알로 우터레 물이 지침시난,<sup>104)</sup>

“어떻허난, 저건 물이 우터레 알려레 털어지어 사는디 저건 우터레 올람시니?”

허난,

“저건 거은물<sup>105)</sup> 거은드리가<sup>106)</sup> 뉘어집네다. 부모 놉똥 얘기 문쳐<sup>107)</sup> 가민 거은물  
거은드리가 뉘엿우다.”

가단보난, 동이청산 근당허다. 청수와당(靑水海) 넘어들엇구나. 서이백산 백수와당  
(白水海) 넘어들엇구나. 남이백산 남수백수 와당 넘어들엇구나. 흑수백산 흑수와당 넘  
어들엇구나. 넘어들언 가단보난, 이 강에서 저 강더레 넘어가젠 허민,

“검은암쇄도 느 갈 길 가라.”

내난, 곡석 밧디<sup>108)</sup> 들엇구나.

“아이고, 상전님아, 상전님아. 검은암쇄 곡석 밧디 들엇우다.”

“이년아, 저년아 본 디 본말 브리라.<sup>109)</sup> 들은 디 들은 말 브리라.”

허여두고, 금봉체로 딱리난<sup>110)</sup> 질이 낮구나. 가단보난 낙수와당(洛水海) 수삼천리

---

92) 계도: 그래도.

93) 모음이라: 마음이라.

94) 금봉첼: 금부체를.

95) 질이: 길이.

96) 연드리: 연다리.

97) 시찌나고: 거슬리고.

98) 검은암쇄에: 검은 암소에.

99) 즈근즈근: 차근차근. 차곡차곡.

100) 좃영: 주어서.

101) 베깃디: 밖에.

102) 우터레: 위로.

103) 놉똥: 놉두고.

104) 지침시난: 끼얹고 있으니.

105) 거은물: 거슬로 흐르는 물.

106) 거은드리: 거슬러 오르는 다리. 자식이 먼저 죽어간다든지, 웃어른의 말을 거스른다든지, 불효한다  
든지 하는 따위.

107) 문쳐: 먼저.

108) 곡석밧디: 곡식밭에.

109) 브리라: 버리라.

110) 딱리난: 때리니.

(數三千里)길이 뒤편구나. 낙수와당 수삼천리 길을 근당허연 올라가단 보난, 아버지  
드리 준 거, 드리 폐완 끌어근, 그 드리 뽕으멍<sup>111)</sup> 올라가젠 허난, 물이 근당허연 거  
북이가 나오란,

거북이 등에 탄 가단 보난, 건지산에<sup>112)</sup> 간 건지허고<sup>113)</sup> 분상시<sup>114)</sup> 허여간다. 세갑  
머리<sup>115)</sup> 육갑에 다완, 건지 육겹, 분상시, 거울상시 허연.

올라 가젠 허난, 열두 문이 근당허난, 열두 문 근당허난, 치메 벗언 열두 폭 인정  
거난,<sup>116)</sup> 허리만 남으난, 늦은덱이 정하님 치메, 여섯폭에 갈랑 입언.<sup>117)</sup>

가단보난, 황금산이 잇엇구나. 황금산에 옆데허난<sup>118)</sup> 황금산 주접선성 좃아오고  
렌<sup>119)</sup> 허난,

날 좃앙 오랏건<sup>120)</sup> 초나록 세 동이 내여주멍, 요것 착쓸 엇이<sup>121)</sup> 깡<sup>122)</sup> 올리렌 허  
난, 콧으로 까저<sup>123)</sup> 콧 아프고, 입으로 까저 이빨 아프고 영 허난,

무정눈에 줌이 들엇구나. 무정눈에<sup>124)</sup> 줌이 드난, 천왕새(天皇鳥) 인왕새(人皇鳥) 지  
왕새(地皇鳥) 오조조조 허연. 일어난 보난, 새가 고득앗구나.<sup>125)</sup>

“이새 저 새. 주어 저 새.”

놀아 가난, 체는 체대로 착쓸 엇이, 은동이 늦동이 체동이 췌동이 깡 올리난, 경 헤  
도 중은 부베간을 아니 허여준다. 불도땅으로 내려가렌 헤연. 불도땅(佛道地) 시왕(十  
王) 곱은 연질이<sup>126)</sup> 뒤편우다.

시왕 곱은 연질 불도땅으로 내려오란, 애산 친구월(九月) 초여드레(初八日) 당허난,  
“아야 배여. 아야 배여.”

알로<sup>127)</sup> 낫저. 아버지도 아니 본 구뭇.<sup>128)</sup> 노단 젓쟁이<sup>129)</sup> 허우여 뜯언<sup>130)</sup> 본명두  
가<sup>131)</sup> 좃아난다. 열두, 열여드레 당허난,

“아야 배여. 아야 배여.”

---

111) 뽕으멍: 뽕으면서.

112) 건지산에: 산 이름.

113) 건지허고: 땀머리를 하고. 건지머리를 하고. 머리를 올려 결혼했음을 나타냄.

114) 분상시: 화장.

115) 세갑머리: 세 가닥으로 갈라 땀은 머리.

116) 열두폭 인정거난: 열두문에 치마를 찢어서 인정(財物) 거니.

117) 갈랑 입언: 나눠 입어서.

118) 옆데허난: 옆드리니.

119) 좃아오고렌: 찾아왔다고.

120) 좃앙오랏건: 찾아왔으면.

121) 착쓸 엇이: 반쪽 쌀 없이.

122) 깡: 까서.

123) 콧으로 까저: 손톱으로 까니.

124) 무정눈에: 몹시 괴로운 일을 당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처지인데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생리  
적으로 졸리면서 스를 감기는 ‘철없고 무정한 눈’이라는 뜻.

125) 고득앗구나: 가득했구나.

126) 곱은 연질이: 구부러진 길.

127) 알로: 아래로.

128) 구뭇: 여자 성기.

129) 노단 젓쟁이: 오른쪽 겨드랑이.

130) 허우여 뜯언: 모질게 뜯어.

131) 본명두가: 본명두. 장남의 이름.



알로 낫져. 아바지도 아니 본 그릇이여. 노단 젓쟁이 성<sup>132)</sup> 나난, 웬 젓쟁이<sup>133)</sup> 허우여 튼언. 신명두가<sup>134)</sup> 솟아나고, 애산 친구월 스무여드레 당허난,

“아야 배여. 아야 배여.”

살아살축 삼명두,<sup>135)</sup> 오목가슴 허우여 튼언 솟아나난, 아들 삼형제 솟아나난,

이 애기덜 공부허젠 허난, 돈도 엇고 거무선성신디 굴묵지기<sup>136)</sup> 베리지기,<sup>137)</sup> 청소허겐.

삼형제가 들어간, 공부 허는디 이 애기덜은 자기장 엇언 글도 못 쓰고, 책 엇엉 익지도<sup>138)</sup> 못허난, 굴묵 지덩, 재 끈끈, 손으로 끈끈 녹드령<sup>139)</sup>, 그디서<sup>140)</sup> 글씨 공부도 허고 배운 거 들엇당 쓰고 익고 허단 보난,

서울 상시관(上試官)이 과걸 본덴 허난, 삼천서비덜 과거 보레 가젠 허난, 이 애기덜 돌앙가민<sup>141)</sup> 느네<sup>142)</sup> 과거 낙방헌덴 허난,

이 애기덜 떨어똥 가젠 허난, 경 해도<sup>143)</sup> 훈디<sup>144)</sup> 가단, 배좌수 고을 당허난,

“너네, 이 배낭<sup>145)</sup> 우이 올라간 배 삼천 방울 땅 와사<sup>146)</sup> 돌앙가키여.”

허난, 걸랑 기영 험셴 헤연. 굽은 디 굽억 굽은 디 굽억 허연. 올라가단 보난, 삼천 선비들은 문 돌아나 불고,<sup>147)</sup> 배, 종이(中衣)바지<sup>148)</sup> 가달더레<sup>149)</sup> 배 탕 노난,

올라도 노려가도 못허연. 이 애기덜 배낭 우이서 밤세낭 비세골이 울어간, 배좌수 꿈에 선몽(現夢) 허길. 청룡이 배낭 우이 감아지고 흑룡이 감아지고 일어난 보난,

애기덜 삼도령이 잇엇구나.

“너네 똥허레 그디<sup>150)</sup> 올라갓느냐?”

허난, 삼천선비덜 배 삼천방울 땅 오민 과거 보는디 돌앙가켄 허연에 배 따레 올라왔우덴 허난,

“설운 애기덜아, 바지에, 중이에, 옷고름 클러블렌.”

헤연. 바지에 다님<sup>151)</sup> 클르난<sup>152)</sup> 배 알더레 털어져 부난 아기덜 내려오랏구나.

---

132) 성: 형.

133) 웬 젓쟁이: 왼쪽 겨드랑이.

134) 신명두가: 신명두. 차남의 이름.

135) 삼명두: 삼명두. 막내아들의 이름.

136) 굴묵지기: 온돌 아궁이 불 때는 사람.

137) 베리지기: 베투지기.

138) 익지도: 읽지도.

139) 녹드령: 놀러서.

140) 그디서: 거기서.

141) 돌앙가민: 데려가면.

142) 느네: 너희들.

143) 경 해도: 그래도.

144) 훈디: 같이.

145) 배낭: 배나무.

146) 땅 와사: 따 와야.

147) 돌아나불고: 달아나버리고.

148) 종이바지: 고의. 적삼.

149) 가달더레: 바지에.

150) 그디: 거기에.

151) 다님: 대님.

설운 애기덜 돈 석냥 주멍, 이거 앓앙 과거 보레 가렌 허난, 궁이 아덜 삼형제 돈단 보난<sup>153</sup>) 간 북문(北門)지기 다 잡앗구나. 서문(西門)지기 다 잡앗구나. 베루전<sup>154</sup>)에 베루 다 거두왔구나. 먹전에 먹 거두왔구나. 종이전에 종이 다 거두완 엇엇구나.

수양청버드남섭 아래 강 누웁 데싸져다 갈라져다 허당, 풋죽 할망<sup>155</sup>) 잇인디 정심이나<sup>156</sup>) 사 먹젠 들어시난

“느넨 어떻게연 과거 보레 아니 간, 어떻게연 이디 잇이니?”

허난, 삼천선비덜 배 삼천방울 따 오민 돌앙 가켄 헤연. 지네만 다 돌앙 가불고 이 제사 미참이 뉘엿우덴 허난, 아이고, 설운 애기덜아 게걸랑 글이나 쓰렌 헤연. 할망 베루 내여준다. 글 쓰난 천왕베포 지왕베포 인왕베포 국베포 영허연. 천지혼합(天地混 습) 천지개벽(天地開闢) 다 썬. 할망, 풋죽할망신디 올리난, 지동토인 옆으로 강 올리 난, 삼천비덜은 글 낙방이여.

이 글 쓴 사름 누구넨? 허난, 엇엇구나. 수양청버드남섭 아래 강 데싸져다 갈라져 다. 놀암시난, 돌아단 ,

“이글 내가 썼느냐?”

“예. 제가 썼습네다.”

입으로 헛헛 쓴다. 발로 헛헛 쓴다. 손으로 헛헛 쓰난, 맞구넨 헤연.

과걸 주난,

“양반이 집 즈식은 과걸 아니 주고, 종이 즈식은 과걸 줍네께.”

헤난, 어떻허민 종이 즈식을 알아지넨 허난,

“도임상(到任床)을 출려<sup>157</sup>) 봅서. 알아질 도리가 잇우덴.”

허난, 도임상을 출리난, 술과 궤긴<sup>158</sup>) 아니 먹으난, 저거 봅서. 종이 즈식 적실허지 아니허우켄 영 헤연.

제반 삼술<sup>159</sup>) 걸영. 옛날은 새각시덜 밥 혼 손가락씩, 새각시 주는 애기덜 무똥<sup>160</sup>) 베깃디<sup>161</sup>) 사시민<sup>162</sup>) 주는 법 마련헤영. 제반 삼술은 안터레 상 알러레 노난, 글 낙 방 활 낙방 시켰구나.

글 낙방 활 낙방 시기난, 이젠 연주문(延秋門) 맞추는 자. 글도 장원, 활도 장원 주 켜 허난, 삼천선빈 연주문을 못 마쳤구나.

젧부기네 삼형제, 종이 아들 삼형제 큰성은 느단에,<sup>163</sup>) 두번체 아신<sup>164</sup>) 원편에, 세

152) 클르난: 풀어버리니.

153) 돈단보난: 달리다보니.

154) 베루전에: 베투전에.

155) 풋죽할망: 팔죽할망.

156) 정심이나: 점심이나.

157) 출려: 차려.

158) 궤긴: 고기.

159) 삼술: 제상에 차린 음식물을 각각 조금씩 처음 걸어 모음.

160) 무똥: 드나드는 문이 있는 출입구나 그쪽의 가장자리 주변.

161) 베깃디: 밖에.

162) 사시민: 서있으면.

163) 느단에: 오른쪽에.

164) 두 번체 아신: 두 번째 동생은.

번첸<sup>165</sup>) 가운데 복판을 맞이한 절로 생강 맞이한, 연주문은 알려레 성강허게 털어지  
난, 과걸 주엇구나.

과걸 주난, 청일산(靑日傘)도 내여준다. 백리산(白日山)도 내여준다. 삼만관속(三萬  
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와라치락 와라치락 내려오난,

삼천선비덜 늦인덱이 정하님신도 돌아오란.

“너네 상전 글 낙방 활 낙방 시겨똥 오민, 우리 돈 삼천냥 모두왕<sup>166</sup>) 주키여.”

허난, 늦인덱이 정하님 어명은 심어단 삼시왕(十王)에 가두와불고 머리 퍼지곡 헤연  
과거 방 암시난,

“아이고, 상전님아, 상전님아. 큰상전님은 죽어근 출병허엿우다.<sup>167</sup>) 과걸 허민 똥  
헐거짜.”

옛날은 부모가 돌아가시민 쥬인의 몸이 똤영<sup>168</sup>) 과거도 돌아가라. 청일산도 돌아가  
라. 백리산도 돌아가라. 삼만관속 육방하인 돌아가라. 와라치락 과거 보내여 두고, 두  
루막 벗언 ㄱ루<sup>169</sup>) 걸치고, 행경(橫經) 벗언 우편 두건<sup>170</sup>) 쓴거. 마련 허연 어머니 초  
메장 헌디 간 보난, 물명지 단속곳 하나 묻엇구나. 그거 판 이젠 어딜 가코.

웨하르방 좃앙<sup>171</sup>) 가주 허연. 웨하르방 좃안 가난, 베석(拜席)자리 내여주엇구나. 베  
석자리 내여주난, 우리 어머니 어딜 가민 좃읍니켄 허난, 황금산 주접선성 아방 좃앙  
가렌 허난, 아방 좃아근 황금산 주접선성신디 올라갈 때 베석자리 끈 건<sup>172</sup>) 걸영 가  
렌 헤연.

걸영 와난 법으로 우리 심방덜 스가칩<sup>173</sup>) 굿허레 가민 신자린 걸영 오는 법 마련헤  
엿우다.

아방 좃앙 황금산 올라가난, 누게 좃앙 올라오랏이넨?

“우리 아버지 좃안 오랏우다.”

“느네 아방 누게고?”

우리 아버지 황금산 주접선성이엔 허난, 우린 양반이 즈식 든 적 엿젠 허난, 어떻게  
민 아버지 허쿠겐 허난, 머리 대공단 고칼<sup>174</sup>) 들영 머리 삭발 허영 중이 똤민 아방  
아들 허켄 허난,

“어명만 좃은덴 허민 그건덜 어려웁네까.”

대공단 고칼 들영 머리 삭발 허엿구나. 머리 삭발 허난,

“나 즈식이 분명허다.”

어머니 좃으컬랑<sup>175</sup>) 팔즈(八字) 굿어산덴<sup>176</sup>) 허난, 심방질 허렌 허난,

165) 세 번첸: 세 번째는.

166) 모두왕: 모아서.

167) 출병허엿우다: 가매장하였습니다.

168) 똤영: 되어서.

169) ㄱ루: 가로.

170) 두건: 주로 상이 났을 때 베로 만들어 상주나 친척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

171) 좃앙: 찾아서.

172) 끈 건: 깎 것은.

173) 스가칩: 사가집.

174) 대홍단 고칼: 머리 삭발하는 고칼.

“어떻게 찾은덴 허민 심방질인덜 어려웁네까.”

“설운 애기덜 어떻 행<sup>177)</sup> 이꼬지<sup>178)</sup> 완디?”

“하늘 보명<sup>179)</sup> 오랏우다.”

하늘천 제(天字) 내여준다.

“땅 보명 오랏우다.”

“따지 제(地字) 내여준다.”

“물으명 오랏우다.”

“물으문 제(問字) 내여준다.”

저 산천에 올랑 물사옥이 새사옥이 비어단, 혼 통은 졸란 절간 법당 북통헌다. 혼 통은 졸라당<sup>180)</sup> 올랑국<sup>181)</sup> 설련헌다.<sup>182)</sup> 혼통은 졸라당 장귀통<sup>183)</sup> 설련헌다. 하늘옥 황 전농록이 아들 불런 벉몰레 왓디<sup>184)</sup> 근당 허영. 아끈 몰레<sup>185)</sup> 한 몰레<sup>186)</sup> 상단궐 중단궐 하단궐에 간 쉼 동녕<sup>187)</sup> 허영. 아버지 나무 신칼 내여준다. 나무 상잔<sup>188)</sup> 내여준다. 나무 천문<sup>189)</sup> 내여주난, 그거 본메로<sup>190)</sup> 아끈 불미<sup>191)</sup> 한 불미,<sup>192)</sup> 아끈 지께 한 지께, 아끈 도간<sup>193)</sup> 한 도간 신칼 지어간다.

천문 상잔 지엇구나.

“설운 애기덜 과거보레 가난, 큰아덜은 뭐가 좋더냐?”

“도임상(到任床)이 좁데다.”

“초감제상<sup>194)</sup> 받으라.”

“셋아덜은 뭐가 좋더냐?”

“삼만관속(三萬官屬) 좋읍데다.”

“셋아덜랑 초신맛이<sup>195)</sup> 허라,”

“족은아덜은 뭐가 좋더냐?”

---

175) 좃으컬랑: 찾고싶으면.

176) 팔즈(八字) 굿어산덴: 심방이 되어야 한다고.

177) 어떻 행: 어떻게 해서.

178) 이꼬지: 여기까지.

179) 보명: 보면서.

180) 졸라당: 잘라다가.

181) 올랑국: 무악기(巫樂器). 북과 징 등을 일컫는 말.

182) 설련헌다: 마련한다.

183) 장귀통: 장구통.

184) 벉몰레 왓디: 하얀 모래밭에.

185) 아끈 몰레: 작은 모래.

186) 한 몰레: 큰 모래.

187) 쉼 동녕: 쇠 동냥.

188) 나무 상잔: 나무로 만든 잔. 술잔처럼 생긴 무점구(巫占具).

189) 나무 천문: 무구의 하나. 엽전 모양의 놋쇠판에 천지문 또는 천지일월 등이 새겨져 있음.

190) 본메: 본틀. 형(型)

191) 아끈 불미: 작은 풀무(治).

192) 한 불미: 큰 풀무(治).

193) 아끈 도간 한 도간: 작은 매듭 큰 매듭.

194) 초감제상: 모든 무의(巫依)의 첫머리에 하는 제차명(第次名)으로 신을 청해들이는 의식이다.

195) 초신맛이: 초감제 다음에 떨어진 신을 청(講)해 들이는 제차(第次).

“삼만관속(三萬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와라치라 어수에 비수에 좋습디다.”

허난,

“널랑 대신맞이<sup>196</sup>)라.”

영 허영 어머니 짚은 궁에 갓건<sup>197</sup>) 앞은<sup>198</sup>) 궁에 내놀립서. 앞은 궁에 갓건 짚은 궁에 내놀립서. 올랑국 범천왕 소리<sup>199</sup>) 옥황더레 도올리난, 삼시왕 갓힌 어멍 내여보 내영 저 올레 엄뜻엄뜻 어머니 얼굴 보이난 어머니 상봉 허엿구나.

아이고, 우리 어멍 어주에 서강베포 땅 들어 강 탕저남은<sup>200</sup>) 비어단 마흔요덥(四十八) 상간주 집을 마련허고, 유저남은<sup>201</sup>) 비어당 서른요덥(三十八) 이간주 집을 마련허고, 신평낭은<sup>202</sup>) 비어단 스물여덥(二十八) 하간주 집을 무엇구나.<sup>203</sup>)

보름 불민 보름 뚜벽, 뜻불민 뜻뚜벽, 동산 새별, 새별 뜨민 보름 불어가는 대로 뜻 불어 가는 대로, 어머니 연양당주 육고비 동심절 본메 놓앙 지케영 잇엇당<sup>204</sup>) 누계왕 폴렌 헤도<sup>205</sup>) 풀지 말고. 도렌 헤도<sup>206</sup>) 주지 말고. 수양 양제(養子) 삼양, 이 조상 물 립센 헤영.

양반이 원수 값은 허젠 허영. 어주에<sup>207</sup>) 삼녹거리(三車里) 가단 보난, 너사무 너도 령 잇구나.

“느넌 누계니?”

허난, 우린 너사무 너도령이우덴 육형제 무언,<sup>208</sup>) 어머니신디 인계 헤영, 신소미청 (小巫請) 마련헤여 두고 가단 보난, 아방 좃아근 가단 보난, 유정승 또님 애기 삼도전 거리에서 놀암시난, 파란 주멩기에<sup>209</sup>) 육간제비<sup>210</sup>) 콤에 채완<sup>211</sup>) 내여주엇구나. 육간 제비 채우난, 유정승 또님애기 혼 일곱에 눈 어둑언<sup>212</sup>) 열일곱에 눈 튼다.<sup>213</sup>) 열일곱에 눈 트난 ,스물일곱에 눈 어둑언 서른일곱에 눈 튼. 마흔일곱 눈 어둑언 쉬운일곱 눈 튼. 예순일곱 눈 어둑언 일흔일곱 눈 트난, 어주쟁이 더루쟁이 미추쟁이 광질다리 뉘연.

아렉넉이 조북장제 단뜰애기 죽언. 열두메에 묶언 ‘아이고 데고’ 허여가난, 들어간.

196) 대신맞이: 대시왕연맞이. 시왕(十王)에게 축원하는 곳 이름.

197) 갓건: 갓으면.

198) 앞은: 앞은.

199) 올랑국 범천왕 소리: 무악기 소리. 북과 징 등을 일컫는 말.

200) 탕저남은: 탕자나무는.

201) 유저남은: 유자나무는.

202) 신평낭은: 팽나무는.

203) 무엇구나: 지엇구나.

204) 지케영 잇엇당: 지켜 있다가.

205) 폴렌 헤도: 팔라고 해도.

206) 도렌 헤도: 달라고 해도.

207) 어주에: 어귀에.

208) 무언: 뗏어서.

209) 주멩기에: 주머니에.

210) 육간제비: 엽전 모양으로 6개 있음.

211) 콤에 채완: 품에 채워서.

212) 어둑언: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뜻.

213) 눈 튼다: 눈 뜬다. 눈이 보이게 되었다는 뜻.

어떻게든 울엄수쥔 허난, 단뜰애기 열두메에 묶언, 죽언에 묶엇젠 허난,

“요레 문전더레 쏘 놓고 물 놓고 상불 피와놔 봅서.”

멕은 짚으난 대명은 잇고 소명은 갖구나. 곁명은 가고 속명은 잇구나. 공신가신(恭神降神) 제저남산 본은<sup>214</sup> 임부역 서준낭 서준공서 영허연 네 귀에 올련, 쏘 썩 나가 근, 백보 베끼디 나강<sup>215</sup>

“소양계곰 한계곰<sup>216</sup> 물영 살아나건 날 좃앙 왕 굿 험서.”

허난,

“결랑 기영 험서.”

백보 베끼디 나가난 아랫녁에 조북장제 단뜰애기 소양계곰 산계곰 물영 살아나난, 어주에 삼녹거리 좃앙 가난 굿 헤여 줍셴 허난, 신소미도 엇고, 올랑국 범천왕 대제 김 소제김도<sup>217</sup> 엇어 지엇구나.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 좃앙 가난, 저 올레에 옆데 허난, 백 근을 채우난 신소미도 내여줄 수 없다. 올랑국 범천왕 대소제김 내여 줄 수 없다. 무당서(巫堂書) 삼천 권 내여주멍 이거 앗앙 강 통달허여 오렌 허난, 무당서 삼천 권 통달 헤연. 저 올레로 옆데허난, 열두 가막세 은저울로, 꽃가막세 은저울로 저울이난 백 근을 찾구나.

약밥 약술 내여주라. 올랑국도 내여주라. 범천왕도 내여주라. 신소미청 내여주렌 헤연. 아랫녁에 조북장제 단뜰애기네 집이 간, 천도천왕 지도지왕 인도인왕 삼간제(三綱) 오륜(五倫)제법으로 천왕기 지늦추고<sup>218</sup> 지왕기 지늦추고 천지 염렛대 질이에게 양산기<sup>219</sup> 나부줄전기<sup>220</sup> 좌우듯기로 만서 소해당클 출사메연 굿헤연 오란.

그 집이 그 애기 살아냥 처음부터 잘 살아나켄 헤엇이민 명의 명점이 뒹엇일 건디, 쏘 싸근 살아나건 험서. 아는 것도 반 모르는 것도 반 영 허난,

큰 굿 헤연 오란 잇입네다. 초공 임전국 상시당(上試堂)<sup>221</sup> 마누라님 여 선성님네 간장(肝腸) 섞던 선성님네, 술 섞던<sup>222</sup> 선성님네 일부 혼잔 독주점 계란 안주로 주잔 덜 권고드립니다예.

214) 본은: 근본은.

215) 베끼디 나강: 밖에 나가서.

216) 소양계곰 한계곰: 작은거품 큰거품.

217) 대제김 소제김: 복을 일컫는 말.

218) 지늦추고: 낮추고.

219) 양산기: 큰곳을 할 때 세우는 기.

220) 나부줄전기: 큰곳을 할 때 매다는 나비 모양의 하얀 종이 조각.

221) 초공 임전국 상시당(上試堂): 초공신을 일컫는 말.

222) 술 섞던: 살 섞던.